

북한의 소나무 ‘국수’ 지정과 함의*

오삼언**·배재수***

북한에서 소나무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관용어를 떠올릴 만큼 ‘만경대혁명일가’를 상징해 왔다. 그런데 2015년 소나무가 국수로 지정된 이후부터는 역설적으로 민족성이 부각되었다. 북한은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소나무가 예로부터 민족의 역센 기상과 강인한 의지 등을 상징했다는 점, 민족의 삶과 소나무가 밀접하게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소나무는 용재림으로서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고 평가받았지만, 국수로 지정된 뒤부터 효용성이 재평가되고 수종 개량 연구도 병행되고 있다. 소나무에 투영돼 왔던 ‘지조’, ‘충절’, ‘기상’ 등의 의미는 ‘사회주의 수호’라는 의미로 맥락화되고 활용된다. ‘애국’을 상징하는 다른 국가상징물과 달리 소나무는 ‘체제 수호·고수’의 기표로 작동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국수 소나무는 산림복구전투를 애국심에 호소하며 독려하는 데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또한 문학예술·교육 분야에서는 소나무를 우선시하는 기준이 생겨났으며, 소나무 경관도 재조명되고 있다. 국수 소나무에는 김정은 시대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욕망이 투영돼 있다.

주제어: 김정은, 소나무, 사회주의, 국가 상징, 김일성

* 본 논문은 2023 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이화여자대학교, 2023년 6월 21일) 발표문을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 국립산림과학원 박사연구원.

*** 국립산림과학원장.

1. 서론: 1990년대 노래의 소환

“무성한 잎새우에 흰눈을 띄이고서/ 푸르러 설레이는 한그루 소나무여/ 세상이 변한대도 제모습 잃지 않을/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 1990년대에 창작된 북한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정성환 작사, 김해성 작곡)의 1절 가사다. 낯선 맞춤법을 제외하고 가사의 내용만 보면 우리나라 노래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다. 사시사철 푸른 소나무를 두고 변치 않을 마음을 빗대어 표현하며 이를 애국심으로 비유하는 것은 남북이 그리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 애국가 2절이 대표적인 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충절과 지조의 의미를 담아내는 애국가의 소나무는 북한 노래에 등장하는 소나무의 상징과 비슷한 면이 있다.

2019년 9월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하 통신)은 1990년대에 창작된 “너를 보며 생각하네”를 “조선 인민이 사랑하는 노래”라며 소개했다.¹⁾ 1990년대 노래의 소환인 셈이다. 통신은 1994년 2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노래를 두고 “사회주의조국의 굳센 기상과 모습을 소나무에 비유하여 잘 형상하였다”라고 평가한 적이 있다며 ‘조선인민의 신념의 노래’라고 강조했다. 이 노래는 마지막 구절인 “아 내 조국의 장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가 후렴구이며 3절로 구성돼 있다. 소나무와 조국을 등치시키는 후렴구인 ‘너를 보며 생각하네’라는 대목이 반복되는 서정적인 노래다.

1) “조선인민이 사랑하는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 조선중앙통신, 2019년 9월 4일.

이 노래가 김정은 시대 접어들어 다시 재조명된 이유는 무엇일까. 2015년 소나무가 국수(國樹)로 지정됐기 때문에 이후 소나무는 다방면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1990년대 노래의 소환도 이와 같은 배경에 놓여 있다.

북한의 국가 상징 중 국호(國號), 국장(國章), 국기(國旗), 국가(國歌)는 북한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됐다. 국화(國花) 목란은 김일성 시대인 1991년에 지정됐다. 국조(國鳥)는 2008년 참매로 지정됐다가 2023년 2월 까치로 변경됐다.²⁾ 국수 소나무는 2015년 4월에 지정됐으며, 국주(國酒) 평양소주는 6월, 국견(國犬) 풍산개는 11월에 지정됐다.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 국수³⁾를 지정한 나라는 북한을 포함해 대략 55개 나라로 추정된다.⁴⁾ 우리나라는 국수를 지정하지 않았으며, 캐나

2) 본 논문에서는 국조가 참매로 표기된 해당 시기 문헌을 그대로 인용한다. 국조는 2023년 2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24차 전원회의에서 정령 1220호로 채택한 국가상징법에 따라 까치로 변경됐다. “조선의 국조: 까치,” 『김일성종합대학』, 2023년 6월 16일.

3) 우리나라에서는 대개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라는 뜻으로 ‘국목(國木)’이라고 표현하는데 본 논문에서는 가독성을 위해 ‘국수(國樹)’로 통칭한다.

4) 저자가 각 나라의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문헌 등을 통해 확인한 것만 기재했다. 참고로 위키피디아는 약 88개 나라 이름과 국수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국수를 지정하지 않은 우리나라(소나무) 등도 포함돼 있다. 저자가 파악한 국수를 지정한 나라들은 55개 나라로 북한을 포함해 과테말라, 남아프리카, 네팔, 니카라과, 덴마크,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레바논, 리투아니아,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멕시코, 몰디브, 몰타, 미국,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방글라데시, 벨리즈, 부탄, 브라질, 세네갈, 스리랑카, 스코틀랜드, 슬로베니아,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이스라엘, 이탈리아, 인도, 자메이카, 칠레, 캄보디아,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쿠바,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태국, 파나마, 파라과이, 팔레스타인, 페루,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필리핀, 아이티, 호주 등이다.

다의 단풍나무, 독일의 참나무, 카타르의 시드라나무는 각각 이 나라를 상징하지만, 공식적으로 국수로 지정된 것은 아니다. 이처럼 국수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각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를 갖고 있는 나라는 30여 개 나라로 파악된다.⁵⁾

북한은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하면서 이전 김일성·김정일 시대에서도 소나무를 국수에 버금가는 귀중한 가치로 인식했음을 소급 적용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의 소나무 관련 교시를 비슷한 맥락이면서도 차별화된 내용으로 정리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김일성 주석은 소나무에 대해 “예로부터 사시창철 푸른 소나무는 변심을 모르는 절개와 의리의 상징으로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아왔다”라고 말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조선민족은 소나무 아래서 자라난 민족이기 때문에 순진하고 소박하면서도 언제나 푸르싱싱한 자기 본색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사시창철 푸름을 잃지 않고 그 어떤 풍파에도 꺾떡없이 역세계 자라

5) 공식적으로 국수를 지정한 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리얼 옐로우드, <http://www.dac.gov.za/national-tree>), 덴마크(유럽너도밤나무, <https://naturstyrelsen.dk/om-os/kontakt/faq/nationalplanter-og-dyr/>), 미국(참나무속, <https://www.congress.gov/congressional-report/108th-congress/house-report/689/1>), 바하마(유창목, <https://www.bahamas.gov.bs/wps/portal/public/gov/government/>), 앙골라(바오밥, <https://angola.org/simbolos/>), 앤티가바부다(앤티가화이트우드, https://ab.gov.ag/detail_page.php?page=27), 인도(벵갈고무나무, <https://roiramallah.gov.in/pages.php?id=58>), 자메이카(블루마호에, <https://opm.gov.jm/symbols/national-tree-the-blue-mahoe/>), 캄보디아(다라수, <https://www.cambodia-travel.com/what-is-the-tree-of-life-in-cambodia-all-about-2/>), 코스타리카(구아나카스테, https://overseas.mofa.go.kr/cr-ko/brd/m_6605/view.do?seq=949398), 콜롬비아(밀랍야차, <https://www.bbc.com/news/world-latin-america-45901218>), 키프로스(골든오크, <http://www.moa.gov.cy/moa/fd/fd.nsf/>) 등 55개 나라로 파악된다.

는 소나무에는 우리 민족의 기상, 우리 국가의 강인성이 그대로 비껴 있다”라고 교시했다.⁶⁾

북한에서 소나무를 비롯한 국가상징물 선전은 2018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 2018년 11월 국수인 소나무를 시작으로 국견 풍산개, 국조 참매, 국화 목란 등이 『로동신문』에 차례로 게재되면서 ‘민족의 긍지와 자부심, 애국심’을 위한 교양사업으로 국가 상징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2019년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인민들에게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할 것을 주문하면서 국가 상징의 강조는 더욱 두드러졌다. 가요 “우리의 국기”는 2019년 1월 1일 『로동신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친필 사인과 함께 수록되는 파격적인 편집이 이뤄지기도 했다.

선행 연구에서는 국가 상징에 대해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으로 부상되는 우리국가제일주의와 맞물려 분석하고 있다. 우선 발전의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분석하면서 ‘국기’가 중요한 표상으로 제시됐다고 본 연구가 있다.⁷⁾ 또한 우리국가제일주의 통치담론이 권위의 공백을 메우려는 정권의 의도적 기획이라고 분석한 연구도 있다.⁸⁾ 이 연구에서도 국가를 전면화하기 위한 의도로 ‘국기’를 강조하고 있다고 봤다. 반면 『아동문학』에 수록된 동시를 통해 우리국가제일주의 구현 양상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국가상징물이 북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쉽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점에 주목했다.⁹⁾ 국가상징물이

6) “너를 보며 생각하네,” 우리민족끼리, 2020년 9월 7일.

7) 정영철,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8~31쪽.

8)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기’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집 3호(2019), 309~345쪽.

우리국가제일주의를 일상생활에서 구체화할 방도가 된다는 것이다. 국기만이 아니라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국수 소나무를 포괄하는 논의가 있다.¹⁰⁾ 이 연구에서는 국가상징물, 특히 국기를 국가 정체성, 국제관계, 국력 과시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소나무에 대해서는 김일성 수령의 가계와 민족의 역사를 문화적으로 결합하는 일환으로 논의했다. 김일성을 민족의 시조 단군에 이어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표현하는 과정과 맞닿아 있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 북한 소나무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로는 대북 지원 수종을 논의한 연구가 있다.¹¹⁾ 이 연구에서는 용도별 적정 조림 수종으로 소나무를 언급하고 있다. 또한 소나무의 생태적 특징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북한 소나무의 분포 특징을 설명하는 연구도 있다.¹²⁾

선행 연구를 종합해 보면 북한의 소나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분석한 연구는 주로 생태적 특징 등을 다루고 있으며 역사 및 정치, 문화적 측면에서 소나무를 초점으로 하고 있는 연구는 매우 한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또한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인 우리국가제일주의를 다루면서 국가 상징 중 하나로 소나무를 언급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초점을 소나무 국수 지정에 둔다. 북한

9) 마성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북측 동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6호(2020), 71~102쪽.

10)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통일연구원 『KINU Insight』, 제4권(2019); 이지순·이무경·전영선,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KINU 연구총서 21-03』(2021).

11) 최현아·배상원·이슬기 외,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용도별 조림수종 선정,” 『통일문제연구』, 제29권 1호(2017), 37~56쪽.

12) 공우석, “북한 소나무과 나무의 생태와 자연사,” 『환경영향평가』, 제15권 5호(2006), 1~18쪽.

은 왜 국수를 지정했으며 소나무를 선택했는지, 소나무 국수 지정의 영향은 무엇인지 등에 주목하는 것이다. 국수 소나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 함의가 드러날 것이다.

2. 북한의 소나무 호명과 인식 변화

1) 김일성 일가의 상징: '남산의 푸른 소나무'

북한에서 소나무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관습적인 어구를 떠올릴 만큼 김일성 주석의 아버지, 김형직 선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돼 왔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김형직 선생이 1918년 일제 강점기에 조국을 떠나 만주로 가면서 지은 노래로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 줄을/ 동무야 알겠느냐"라는 내용으로 돼 있다.¹³⁾

북한은 이 노래에 김형직 선생의 반일애국사상이 담겨 있다고 평가하면서 '투철한 민족자주사상과 백절불굴의 혁명정신, 대를 이어 싸워야 한다는 계속혁명의 사상' 등이 녹아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항일혁명운동의 시원을 김일성, 나아가 김형직에게서 찾을 수 있는 상징이자, 관용어다. 북한은 이 노래가 만들어진 지 100주년이 된 2018년에 사회과

13) '남산의 푸른 소나무' 노래 2절과 3절 가사는 다음과 같다. "나라의 독립을 못할 바에야/ 살아서 무엇하리/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광복의 한길에서 굴함없을/ 동포야 믿어다오", "이 한몸 싸우다 쓰러지면/ 대를 이어 싸워서도/ 금수강산 삼천리에/ 양춘을 찾아올제 독립만세를/ 조선아 불러다오".

학부문 연구토론회를 열고 이 노래에 담긴 사상과 정신의 본질 등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다.¹⁴⁾ 2017년에는 김형직 선생이 결성했다는 항일단체, 조선국민회 100돌을 기념하며 이 노래의 가사와 악보가 반영된 우표를 발행하기도 했다.¹⁵⁾ 황해북도 사리원시 경암산 바위에는 노래 가사를 새기고 ‘혁명사적 표식비’를 세우기도 했다.¹⁶⁾ 이처럼 북한에서 ‘소나무’는 소나무 자체가 아니라, 김형직 선생이 만들었다는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상징으로, ‘혁명의 시원’으로 호명돼 왔다. 이는 나아가 김형직의 ‘지원(志遠)’ 사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했다. 김형직 선생이 지원 사상을 담아 ‘남산의 푸른 소나무’ 노래를 지었다는 논리다. 북한은 지원사상에 대해 원대한 뜻을 품고 시련이 오더라도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해야 한다는 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북한에서 소나무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로서 항일혁명운동의 시원을 ‘만경대혁명일가’로 떠올리게 하는 상징으로 작동해 왔다. 그런데 소나무가 국수로 지정되면서 이 같은 양상에 변화의 조짐이 일어났다.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이유와 의미를 강조할수록 소나무에 담긴 민족의 역사와 의미, 가치 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기 때문이다. 2018년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가 펴낸 『조선의 국수-소나무』라는 단행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¹⁷⁾ 215쪽 분량의 이 도서는 ‘민족사에

14) “북, 남산의 푸른 소나무- 민족자주, 계속혁명 사상의 노래,” 『자주시보』, 2018년 11월 14일.

15) “북, 김정은 증조부 ‘반일단체’ 결성 100돌 대대적 기념,” 연합뉴스, 2017년 3월 23일.

16) 조선중앙통신, 2005년 9월 9일.

17) 공명성·엄영일·리호철, 『조선의 국수-소나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8), 1~215쪽.

서 본 소나무'와 '소나무를 람별하고 그 전통문화마저 말살하려고 한 일제의 만행' 등의 목차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김형직 선생과 연관된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일제 강점기 때 애국의 마음을 소나무에 반영하는 다양한 문학작품들이 창작됐다면서 의병장들의 한문시 등 각종 작품을 비중 있게 소개하고 있다. 항일혁명지사, 반일애국사상을 표현하는 각종 시조와 한문시 작품들을 통해 설명되는 소나무는 더 이상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표상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양상은 '남산의 푸른 소나무'였던 소나무가 '민족이 사랑한 소나무'로 의미가 변환하는 과정이다. '만경대혁명일가 상징'과 '민족성 상징', 이 두 가지 의미가 혼재되고 중첩되는 양상이라기보다는 '민족성 상징'으로 변환하는 과정에 가깝다. 물론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소나무의 민족적 상징이 거론됐지만 당시에는 김형직 선생의 항일혁명운동 등 만경대혁명일가의 의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강조됐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어 국수가 된 소나무는 민족성 자체를 부각시키고 있다. 김일성·김정일 시대에 소나무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로 통칭했다면 김정은 시대에 소나무는 '민족'을 호명한다.

2) 민족성의 부각: '민족이 사랑한 소나무'

북한이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이유를 정리해 보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가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민족성이 부각되려는 점을 알 수 있다. 북한이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소나무가 예로부터 민족의 역센 기상

과 강인한 의지 등을 상징해 왔다는 점이며, 둘째는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에 소나무가 자라면서 민족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다는 점이다. 즉, 상징성과 친근성(밀접성)이다.

첫째, 소나무를 민족의 역사와 결부 지으면서 민족성이 강화된다. 사시사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소나무가 강인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한다는 맥락이다. 『로동신문』은 “왜 우리 민족은 소나무를 그렇듯 좋아하고 사랑하였겠는가”라고 물으며 “바로 우리 민족의 역센 기상, 녀과 의지, 숨결이 소나무의 생물학적 특성에 그대로 비껴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사나운 눈바람, 찬서리 속에서도 언제나 푸른 한본새를 변치 않고 끝끝내 봄을 맞는 소나무를 오랜 력사적 기간의 반침략투쟁 시기마다 굴하지 않고 일어나 싸워온 우리 민족의 기개의 반영으로, 백절불굴의 상징”으로 여겨 왔다는 설명이다.¹⁸⁾ 『민주조선』은 소나무가 “순박하면서도 강인한 우리 민족의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다”라고 표현한다.¹⁹⁾ 소나무에 민족의 역사와 성격 등을 투영하는 이 같은 설명은 “인민들이 소나무의 모습에 장중하면서도 역세고, 고결하면서도 변하지 않고, 굳세면서도 열정적이라는 뜻과 정서를 담는” 이유가 된다.²⁰⁾

둘째, 소나무와 연관된 민족의 생활양식 등 역사적 사례를 소개할 수록 민족성이 부각된다. 『로동신문』은 “거의 모든 지역에 소나무가 자라면서 자연풍경의 전형처럼 인식돼왔다”면서 “선조들이 자연풍경을 그려도 소나무를 그리는 것을 즐겨했으며 소나무 숲은 산수풍경의

18) “민족의 녀과 기상이 어린 국가상징들,” 『로동신문』, 2020년 2월 2일.

19) “조선의 국가상징: 국수-소나무,” 『민주조선』, 2018년 10월 16일.

20) 리영일(김일성종합대학교 교수박사), “조선인민의 기상과 조선의 국수-소나무,” 『김일성종합대학보』, 2016년 3월 8일.

기본 묘사대상이었다”라고 짚었다. 또한 소나무 조림을 장려한 역사적 시기를 고구려 때부터라고 밝힌 보도에서는 ‘소나무에 대한 우리 민족의 남다른 사랑을 집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고장’으로 고려시대 송도로 불린 개성시를 소개하기도 했다.²¹⁾ 『민주조선』은 2019년 3월 김일성종합대 교수의 인터뷰 형식을 통해 역사서인 『삼국사기』와 『고려사』 등을 언급하고, 역사적으로 소나무를 이용해 온 각종 사례를 설명하며 ‘소나무와 우리 민족의 깊은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본래 소나무는 ‘민족수(民族樹)’라고 일컬어지기도 했다. 조선시대 아기가 태어나면 집 대문의 양쪽 기둥 사이에 솔가지로 끼운 ‘금줄’을 쳐 아이의 탄생을 알렸다. 또 솔가지로 불을 피우고 소나무로 만든 농기구 등을 사용해 생활했다. 소나무를 이용한 각종 음식, 예를 들어 송편, 송화, 다식, 송기떡, 송엽주 등을 먹으며 살다가 소나무로 만든 관에 묻힐 정도였으니 민족수로 칭해졌다.²²⁾ 북한의 소나무 설명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나무에서 나고 소나무에서 살다가 소나무속에 죽는다’는 표현을 소개하고 있다.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가 2018년에 펴낸 『조선의 국수-소나무』라는 단행본에는 “우리 민족은 오랜 역사적 기간 소나무와 뿔레야 뿔 수 없는 역사적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하여 소나무와 관련한 우리 민족의 역사와 생활은 총체적으로 소나무문화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소나무문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²³⁾

21) “조선의 국수 소나무,” 조선의 오늘, 2022년 4월 18일.

22) 전영우, 『나무와 숲이 있었네』(서울: 학고재, 1999), 181~193쪽.

23) 공명성·엄영일·리호철, 『조선의 국수-소나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8), 1~215쪽.

이처럼 북한이 소나무를 국수로 정한 이유를 설명할수록 소나무의 민족적 성격은 더욱 부각되고 선명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조선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이기 때문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한 문헌도 있다.²⁴⁾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국수의 개념, 즉 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라는 설명에 뒤이어 “소나무는 오랜 역사적 기간 우리 민족과 력사행로를 같이하면서 조선민족을 상징하는 나무로 되어왔다”라고 적시하고 있기도 하다.²⁵⁾ 이와 같이 북한이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이유를 강조할수록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서 ‘민족이 사랑한 소나무’로 의미가 확장되고 변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일 수밖에 없다.

소나무를 민족, 국가와 연관 지어 투영한다는 점에서는 남북이 닮은꼴이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의 식생 특성을 두고 ‘가장 참을성 많은 나무’라고 해석하면서 ‘소나무 마인드는 한국인 마인드’라고 명명하거나²⁶⁾ “(소나무의) 구불구불한 줄기와 뒤틀린 나뭇가지에서 우리는 한국인의 모습을 본다. …… 척박한 땅에서 풍상과 싸워온 그 아픈 흔적을 소나무만큼 생생하게 보여주는 나무도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한다.²⁷⁾ 또한 “흔히 역사적 시련은 겨울의 이미지로, 소나무는 그것을 꿋꿋이 견뎌내는 존재로서의 민족을 드러낸다”라고 평하고 있기도 하다.²⁸⁾ 이처럼 남한의 많은 학자, 예술가들도 소나무를 우리 민족과 국

24) 이와 같은 맥락에서 쓰이고 있는 ‘조선 민족’은 ‘조선민족제일주의’ 등에 차목돼 있는 ‘김일성민족’ 등의 개념이 아니라 일반적인 민족 개념이다.

25) “국가상징들에 어려있는 숭고한 뜻(6),” 조선의 오늘, 2020년 9월 11일.

26) 이규태, “소나무와 의식구조,” 이어령 엮음, 『한·중·일 문화코드 읽기 비교문화상징사전: 소나무』(서울: 종이나라, 2005), 155쪽.

27) 이어령 엮음, 『한·중·일 문화코드 읽기 비교문화상징사전: 소나무』(서울: 종이나라, 2005), 6쪽.

가와 연관시켜 상징과 비유의 대상으로 삼아 왔다.

3. 소나무 국수 지정의 배경과 이유

1) 소나무 효용성과 재평가

북한에서 소나무가 국수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일까. 소나무는 조선 시대 때부터 소나무는 배를 만들고 궁궐을 짓는 자재로 중요하게 취급됐다. 조선시대 소나무의 중요성은 단일 수종에 대한 정책으로 ‘송정(松政)’이 시행될 정도였다.²⁹⁾ 송정(松政)은 조선시대 산림정책이자, 동시에 국방정책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는데 소나무가 전함[전선(戰艦)]을 만드는 선박재로 철저하게 관리됐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는 소나무가 잘 자라는 섬과 해안 주변의 소나무 숲을 찾아 봉산(封山)으로 지정하고 군사 조직인 수영(水營)의 수사에게 관리·감독권을 부여했다. 소나무가 조선시대 얼마나 중요한 대상이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³⁰⁾ 조선 후기 송정(松政)은 남북한 모두 소나무를 중요시 여기고 가치를 두게 된 출발점, 뿌리라고 할 수 있다.

28) 김현자, “현대시로 본 소나무,” 이어령 엮음, 『한·중·일 문화코드 읽기 비교문화 상징사전: 소나무』(서울: 종이나라, 2005), 207쪽.

29) 송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배재수 외, 『조선후기 산림정책사』(국립산림과학원, 2002), 209쪽; 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체계와 변천과정,” 『산림경제연구』, 제10권 2호, 22~50쪽.

30) 세종실록에는 1421년 당시 왜군이 배의 재목인 소나무를 구하러 전라도 해변을 드나든다는 기록도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0308024_003(검색일: 2023년 5월 10일).

오늘날에도 소나무는 고급 건축용 자재나 선박재로 이용되며 용재림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북한에서 소나무는 용재림의 효용성 측면에서 이깔나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 2000년에 출판된 북한의 총서인 『산림총서』 6권을 살펴보면 소나무는 창성이깔나무 등과 함께 용재림으로 분류돼 있다. 소나무는 창성이깔나무, 이깔나무 다음 3번째 순위로 설명되고 있는데, 이는 용재림 효용을 고려한 순서로 보인다. 창성이깔나무와 이깔나무는 소나무에 비해 생장 속도가 빠르고 남한과 달리 북한의 기후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이다. 용재림 측면에서만 따져보면 소나무는 창성이깔나무, 이깔나무 다음 순위인 셈이다.

2010년에 출판된 북한의 중학교 6학년용 ‘림업’ 교과서에서도 흥미로운 대목을 살펴볼 수 있다.³¹⁾ 소나무 수종에 대한 평가가 다소 부정적인 뉘앙스를 띠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교과서에는 산림 개조를 해야 할 대상지, 즉 ‘쓸모없는 산림류형’으로 ‘쓸모없고 생산성이 낮은 소나무림’을 꼽고 있다.³²⁾ 구체적으로는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매우 낮고 경제적 의의가 적은 다박솔림³³⁾, 꼬부랑소나무림과 IV나이급에서 리용급에 도달하지 못하고 정보당 축적이 30m³ 이하인 생산성이 낮은 소나무림이 속한다”라고 돼 있다. 소나무림을 평가하는 데서 중요 기준이 생산성이며 생산성이 낮은 소나무림을 다른 수종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정책 기조가 분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 『로동신문』의 보도를 살펴보면 소나무가 장려 수종이 아니

31) 『림업』(중학교 제6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0), 1~465쪽.

32) 위의 책, 91쪽.

33) ‘다박솔’은 다박솔의 북한말로 가지가 많이 퍼져 탐스럽고 소복한 어린 소나무를 일컫는다.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589278&viewType=confirm(검색일: 2022년 7월 12일).

었다는 점이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2001년 2월 식수절³⁴⁾을 맞아 나무심기를 독려하는 보도에서는 모두 29번 나무 이름이 언급됐으나 소나무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³⁵⁾ 이 보도에서는 수종이 좋은 나무로 민아카시아나무, 수삼나무, 느티나무, 붉은단풍나무, 은행나무 5개 수종을 소개했다. 또 지역의 기후조건에 맞는 수종을 언급하며 산지대에는 분비나무 등 6개 수종, 중간지대에는 잣나무 등 3개 수종, 낮은 지대에는 수삼나무 등 4개 수종을, 토양의 비옥도 등에 따른 구분에서도 모두 11개 수종을 독려했지만 소나무는 포함되지 않았다. 식수절을 기념해 나무를 심자는 독려를 하면서도 소나무를 장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 효용성 측면에서는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할 이유가 크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소나무가 천연갱신³⁶⁾에 강한 편이라고 하더라도 2001년 식수절을 맞아 장려 조림 수종으로 소나무가 한 번도 꼽히지 않은 것은 2019년 소나무를 우선순위로 꼽은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2019년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은 당해 나무 심기 과제에 대해 첫째, 국수인 소나무 심기, 둘째, 창성이깔나무 등 보호림 조성, 셋째, 목재림과 기름나무림 조성 등을 제시했다.

34) 북한의 식수절인 3월 2일을 앞두고 2월 25일에 ‘식수절을 맞으며 더 많은 나무를 심자’는 제목으로 보도됐다. 북한의 식수절은 2022년 10월 25일 3월 2일에서 3월 14일로 변경됐다.

35) “식수절을 맞으며 더 많은 나무를 심자,” 『로동신문』, 2001년 2월 25일.

36) 천연갱신이란 주로 자연의 힘으로 후계림을 조성하는 것을 뜻한다. 산림임업용어사전, [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mwd/selectMtstWordDictionary.do?pageIndex=1&pageUnit=10&wrdSn=8984&searchWord=&searchType=&wrdType=0&searchWrd=%ec%b2%9c%ec%97%b0%ea%b0%b1%ec%8b%a0&mn=NKFS_04_07_01&orgId=\(검색일: 2023년 6월 1일\).](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mwd/selectMtstWordDictionary.do?pageIndex=1&pageUnit=10&wrdSn=8984&searchWord=&searchType=&wrdType=0&searchWrd=%ec%b2%9c%ec%97%b0%ea%b0%b1%ec%8b%a0&mn=NKFS_04_07_01&orgId=(검색일: 2023년 6월 1일).)

북한에서 소나무의 효용성은 국수 지정 후 달라진다. 소나무의 효용에 대해서도 재인식 및 재평가 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수로 지정된 뒤 소나무는 첫째, 경관 조성을 위한 조경수로 효용성을 재평가받고 있다.³⁷⁾ 거리와 공원, 유원지 등의 나무와 꽃을 심고 가꾼다는 의미의 원림화를 위한 수종으로 소나무를 독려하는 양상이 뚜렷해진 것이다. 평양 등의 도시에 “민족의 녀과 기상이 어린 소나무”를 많이 심어 “풍치수려하고 민족적 정서가 차넘치는” 도시로 꾸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³⁸⁾ 소나무를 통해 수려하고 민족적인 정서를 조성해야 한다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소나무 관련 연구를 장려하면서 소나무의 효용성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의식이 드러난다는 점이다. 송진이나 송이버섯 등의 효능을 강조하거나 새로운 변종을 장려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2019년에는 특히 ‘금야흑송’을 주목했다. 북한은 금야흑송에 대해 강원도 통천 지방에서 자라는 흑송에서 채취한 종자를 금야지방에서 묘목으로 키워 바닷가에 심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³⁹⁾ 금야흑송이 한 해에 80cm, 최고 110cm까지 자라는 등 초기 성장이 빠르다는 점에서 효용성이 뒷받침되는 것이다. 금야흑송의 원종 보존을 위한 국가적인 보호구를 강원도 통천군에 지정한 사례는 북한 당국이 소나무 수종 개량에 공들인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⁰⁾ 2019년 3월 『로동신문』이 “오늘 소나무는 과학기

37) 『로동신문』 등 북한 문헌을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는 경제림으로 잣나무, 밤나무, 참대버드나무, 가래나무 등이 장려되며 일반 조림으로 창성이깔나무, 금야흑송이 꼽힌다. 약재 생산을 위해 단나무(아로니아), 황경피나무(황벽나무), 짙광이나무(산사나무) 등이, 원림화를 위한 수종으로는 소나무와 함께 금잎회화나무, 금잎느릅나무, 붓나무(자작나무) 등이 장려되고 있다.

38) “소나무를 더 많이 심어 가꾸며,” 『로동신문』, 2019년 3월 1일.

39) “금야흑송,” 『로동신문』, 2019년 5월 19일.

술의 발전과 함께 그 리용분야가 부단히 넓어지고 쓸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는 것 또한 그 연장선에서 볼 수 있다.⁴¹⁾

한편, 북한 소나무 숲의 규모도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배경으로 살펴볼 수 있다. 북한에서 소나무는 면적상 가장 많이 분포돼 있는 나무 중 하나다. 세계적으로 소나무속에 속하는 나무는 100여 종에 이르는데 북한에는 10여 종이 있다. 소나무 숲은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북도에 많이 분포돼 있으며 백두산 소연지봉에도 소나무가 자라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⁴²⁾ 북한의 2000년 자료에 따르면, 북한 산림 면적 대비 소나무 숲 비율은 18.9%이다. 행정구역별 해당 산림 면적 대비 소나무 숲 비율은 남포시 60.2%, 평양시 46.0%이며 황해남도, 황해북도, 함경남도 등은 30%를 넘는다. 소나무 숲만 놓고 봤을 때 북한 전역에서 그 비율이 제일 높은 곳은 함경남도로 20.5%이다.⁴³⁾ 북한은 소나무가 “나라의 북부 높은 산지대를 제외한 해발높이 800m 아래의 넓은 지역에서 자란다”면서 “일부 중국 동북지방, 로씨야 원동지방, 일본에도 퍼져있으나 우리 나라가 기본 분포중심지”라고 밝히고 있다.⁴⁴⁾

남한 또한 소나무 숲의 비율이 높다. 2021년 남한의 산림 면적 대비 소나무 숲 비율은 25.09%다.⁴⁵⁾ 조사 시기 등을 감안하더라도 산림

40) “북(北) 금야흑송 가꾸기 사업 활발... 강원도 통천에 보호구,” 통일뉴스, 2020년 7월 3일.

41) “조선의 국가상징,” 『로동신문』, 2019년 3월 1일.

42) 이곳은 해발 2110m로 높이 1.8m의 소나무가 우산모양으로 갓을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라는 소나무인 썸이다.

43) 손기성, 『산림총서(6)』(평양: 공업종합출판사, 2000), 34쪽.

44) “조선의 국수-소나무,” 통일의 메아리, 2015년 12월 30일.

45) 2021년 우리나라 산림 면적은 629만 4,334ha이며 해송을 포함하는 소나무류 면적은 157만 9,787ha이다. 산림청, 산림임업통계연보(2022), <https://kfss.forest.go.kr/stat/ptl/fyb/frstyYrBookList.do?curMenu=9854>, 164쪽.

면적 대비 소나무 숲 비율은 남북 모두 높은 편이다.

2) 사회주의 체제 수호 맥락화

소나무의 효용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조건에서 북한이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역사적으로 소나무에 투영돼 왔던 지조, 충절, 기상 등의 의미를 ‘사회주의 수호’라는 의미로 맥락화, 활용하는 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효용성을 압도한 셈이다.

소나무는 ‘사회주의 조선’이라는 북한의 정체성을 담아내는 의미로 활용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소나무 관련 교시 중 대표적인 발언은 “소나무에는 우리 민족의 기상, 우리 국가의 강인성이 그대로 비껴있다”라는 표현이다.⁴⁶⁾ 이 발언은 ‘민족의 기상’과 ‘북한의 강인성’을 소나무 정신으로 부각시키는 것인데 주목할 점은 강인성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 수호의 의미를 내포한다는 데 있다. 이와 같은 맥락화를 2019년 3월 『로동신문』의 보도가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보도에서는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사시절 푸르고 억센 소나무를 강의한 민족적기상의 상징으로 내세웠으며 소나무를 매우 사랑하여왔다”라고 밝히고 “소나무에 대한 우리 인민의 남다른 민족적정서는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자주적이고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 투쟁행로에서 더욱 승화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소나무의 ‘강인한 민족적 기상’을 ‘사회주의 체제 수호의 강인한 기상’으로 연결 짓고

46) “민족의 억센 기상이 비낀 조선의 국수 소나무(1),” 『로동신문』, 2018년 11월 11일.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설천지속에서도 곳곳이 서있는 소나무의 모습은 그대로 오늘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부정의의 온갖 도전과 시련에도 굴함없이 자주, 사회주의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선구자적기상,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과 변혁의 역사를 펼치며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우뚝 솟아올라 만방에 위상 떨치는 주체조선의 장한 모습”이라고 강조한다.⁴⁷⁾ 사시사철 푸르고 억센 소나무에 ‘사회주의 체제 수호 및 고수’의 의미를 빚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명곡 중 하나로 평가받는 노래,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의 가사 내용인 “눈속에 묻힌대도 푸른 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자”라는 것 또한 같은 맥락이다. 소나무를 두고 북한 사회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해야 한다는 수령의 유훈을 떠올리는 것 또한 연장선이다. 김일성종합대학 교수는 “내 나라의 자랑인 조선의 국수-소나무를 바라볼수록 수령이 령도하는 정의로운 위업에 한몸바칠 결심을 품고 나선 혁명가는 눈속에 파묻혀도 푸름이 변하지 않는 소나무처럼 철창속에서 일생을 마칠지언정 자기의 신념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울린다”⁴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대목은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의도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9월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에 실린 수필에서도 이 같은 대목이 확인된다. 이 수필에서 소나무는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사회주의 한길로 곳곳이 걸어가는 우리 인민의 강인한 모습

47) “조선의 국가상징,” 『로동신문』, 2019년 3월 1일.

48) 리영일, “조선인민의 기상과 조선의 국수 - 소나무”.

을 안고”⁴⁹⁾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이는 “너를 보며 생각하네” 노래 가사 3절에도 반영돼 있다. “세상이 변한대도 제 모습 잃지 않을/ 아 내 조국의 강한 모습/ 너를 보며 생각하네”라는 3절의 가사에서 소나무는 ‘사회주의 한길’로 걸어가는 조국에 대한 칭송과 같다.

북한은 2017년 8월과 2022년 10월 두 차례에 걸쳐 국화, 국조, 국건, 국수 4종의 개별 우표를 발행했는데, 우표에 그려진 소나무는 하얀 눈이 덮인 이미지로 형상화돼 있다. 2017년은 유엔의 대북제재가 2006년부터 시작된 이래, 가장 강화된 6번째 결의안인 2375호가 채택된 시기다.⁵⁰⁾ 2022년은 북한이 조선중앙TV를 통해 국제사회가 ‘3대 위기’인 ‘코로나19 등 전염병 발병, 자연재해, 식량 및 에너지 위기’를 겪었다고 평가한 해이기도 하다.⁵¹⁾ 이와 같은 시기적 배경을 환기하면 겨울철 눈 덮인 속에서도 변함없이 잎이 지지 않는 소나무의 이미지는 대북제재와 3대 위기가 지속되는 조건 속에서도 자력갱생 등을 통해 사회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7년 어린이 책가방 상표를 ‘소나무’라고 직접 명명했다고 밝히고 있다. 소나무 상표명 또한 소나무가 국수로 지정된 것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소나무 상표 명명을 모티브로 한 북한의 2019년 단편소설에서는 소나무 상표가 “조국의 미래를 대표하는 아이들이 저 억센 국수처럼 자기의 것을 소중히 지키며 씩씩

49) “너를 보며 생각하네,” 우리민족끼리, 2020년 9월 7일.

50)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5호는 2017년 9월 채택됐으며 대북 유류 공급 제한, 북한의 석유 수출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결의안 2321호는 2016년 9월 채택됐다.

51) 조선중앙TV, 2023년 1월 23일; “북한이 꼽은 2022년 ‘3대 위기’ ... 코로나19자연재해·식량난,” 뉴스1, 2023년 1월 25일에서 재인용.

〈그림 1〉 북한 우표에 형상화된 ‘소나무’의 모습



2017년 8월 발행



2020년 1월 발행



2021년 1월 발행



2022년 10월 발행

자료: 조선우표사 등.

하고 의젓하게 자라나라는 깊은 뜻”에서 붙여졌다고 표현된다. 특히 이 단편소설에서는 어린이들이 미키마우스가 그려진 책가방이 아니라 소나무가 그려진 책가방을 메게 됐다면서 “자기의 것에 대한 금지감”을 강조하고 있다.⁵²⁾ 아이들의 가방에 그려진 ‘미키마우스’가 ‘소나무’로 바뀐 현실을 묘사한 소설은 국수 소나무가 지정된 배경과 이유를 형상화하는 것이기도 하다.⁵³⁾ 억세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소나무는 북한 체제의 고난과 난관을 반증하는 동시에 체제 수호와 고수에 대한 바람을 드러낸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보면 국기, 국화 등 다른 국가상징물들이 ‘국가’, ‘애국’의 기표와 결합돼 있다면 국수, 소나무는 그와는 달리, ‘체제 수호·고수’의 기표라고 할 수 있다. 소나무에서는 ‘국가’보다 ‘체제’가 앞서는 셈이다.

52) 주설웅, “소나무,” 『조선문학』, 제5호(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9), 8~17쪽.

53) 소설 원문에서는 ‘미키마우스’라는 표현이 아니라 ‘가방뒤에 붙어있는 외국만화 영화에서 나오는 꺾장쥐그림’이라고 표현돼 있다.

3) 산림복구전투와 애국심 표상

소나무가 국수로 지정된 2015년은 북한에서 산림복구전투가 시작된 해다. 산림항폐화 문제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초기부터 의지를 밝힌 바 있다. 2012년 4월 국토관리 관련 담화를 발표하면서 산림복구를 공식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으며,⁵⁴⁾ 2015년 2월에는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라는 담화를 발표했다.⁵⁵⁾ 산림복구전투는 2015년 3월 주민 총동원을 골자로 하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방위원회, 인민군 최고사령부 공동결정서’가 내각에서 채택되고 산림 분야에 별도 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되면서 본격화됐다. 소나무 국수 지정은 주민 총동원이 논의된 내각 결정 직후인 4월에 이뤄졌다. 산림복구전투에 돌입하면서 국수를 지정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시점이다.

북한은 산림복구전투에 돌입하면서 나무심기를 애국심과 등치시켰다.⁵⁶⁾ “오늘의 전민총돌격전에서 한그루의 나무라도 더 많이 심고 정성껏 가꾸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라며 산림복구전투를 독려하는 것이다. 『로동신문』은 “정세가 극도에 달하고 설사 래일 전쟁이 일어난

54) 김정은 위원장이 2012년 4월 27일 발표한 담화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9일.

55)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 2015. 2.26,” 『로동신문』, 2015년 2월 27일.

56) 산림복구전투와 김정일애국주의의 관계 등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오삼언·김은희·김경민,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제14권 2호(2018), 101~133쪽.

다고 하여도 우리는 후대들에게 만년대계의 재부를 물려주기 위한 산림복구전투를 순간도 멈출 수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했다.⁵⁷⁾

산림복구전투가 대중동원의 형태로 진행되는 만큼 북한은 ‘산림복구전투=애국심의 발현, 후대를 위한 애국사업’, ‘푸른 숲=애국심을 평가하는 척도’, ‘한 그루 나무 더 심는 사람=진정한 애국자’라는 등식을 강조했다.⁵⁸⁾ 이에 따라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그루라도 제 손으로 심고 정성껏 가꿀 때 싹트고 자라나게 되는” 것이기에 “산림복구전투장이 자신들의 충정심과 애국심을 검열받는 마당”으로 여기고 “애국의 삽을 빼심을 들여 깊숙이 박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⁵⁹⁾

국수 소나무 지정은 산림복구전투를 애국심에 호소하며 독려하는데 효과적으로 역할을 한다. 비단 소나무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자는 대중 동원의 논리가 다양하게 파생되기 때문이다.

4. 국수 지정의 영향과 효과

1) 문학예술·교육 분야의 변화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뒤 예술작품 등 미적 평가에서 소나무를 우선시하는 기준이 생겨났다. 미술 부문에서는 주체성과 민족성을 구

57)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자,” 『로동신문』, 2017년 3월 2일.

58) “사회주의애국립운동,” 『로동신문』, 2017년 3월 3일.

59)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자,” 『로동신문』, 2017년 3월 2일.

현하는 방도로 “국수인 소나무와 국화인 목란꽃을 비롯하여 우리 국가의 상징들을 조선화를 비롯한 전통적인 미술형식들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⁶⁰⁾ 이 방도는 ‘수령 형상’ 창조 다음 순위인 두 번째로 언급된 것이어서 상당한 무게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문학예술 분야에서 첫 번째 원칙은 수령 형상화 관련 내용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기조는 2019년 광명성절 경축 미술작품전시회에서 도 확인된다. 이 전시회는 ‘조선의 국수-소나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북한 전역의 창작가들과 애호가들이 창작한 150여 점의 소나무 주제 미술작품이 출품되었다. 이 전시회에는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노동자, 소학교 학생, 유치원 어린이 등이 창작한 펜화 <송도원>, 색진흙공예 <제일강산>, 유화 <동해의 억센 소나무>, 크레용화 <우리나라 제일이야> 등의 작품도 전시되었다.⁶¹⁾

이처럼 국수가 된 소나무는 예술작품에서도 중요한 대상으로 변화했다. 자강도의 미술창작가들은 소나무를 훌륭히 형상화하기 위해 “눈 덮인 험한 산밭들을 뚫아가며 우리 민족의 기개가 비긴 소나무들을 습작”했으며, 원산예술학원에서는 “조선의 국수 소나무를 누가 더 고유한 특징이 살아나게 잘 그리는가, 누가 더 우리 민족장단을 기악작품 연주에서 잘 살리는가에 기본”을 두고 기량발표회를 진행했다.⁶²⁾

60) “미술부문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명작창작의 기본,” 『로동신문』, 2019년 6월 4일.

61) “소나무의 억센 기상을 화폭에 담으며,” 『로동신문』, 2019년 2월 3일;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미술작품전시회 <조선의 국수-소나무> 개막,” 『로동신문』, 2019년 2월 14일; “우리 민족의 기상, 우리 국가의 강인성이 비친 화폭들 광명성절경축 미술작품전시회 <조선의 국수-소나무>를 보고,” 『로동신문』, 2019년 2월 27일.

62) “자강도 미술창작사에서,” 『로동신문』, 2019년 6월 27일.

교육 내용 등에도 변화를 불러왔다. 2018년 『로동신문』은 미술교육을 소개하며 “초보적인 미적 인식과 미적 정서를 안겨주는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단계의 미술교육에서는 무엇보다 먼저 김일성화와 김정일화, 우리나라의 국기와 국장, 국수, 국견, 국조, 국화를 비롯하여 절세의 위인들을 칭송하고 나라를 상징하는 대상들을 그림으로 아름답게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각이한 종류의 미술작품을 창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져주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 내용에서도 큰 변화가 생겼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신문에서는 교육자들에 대한 당부로 “학생들에게 아름다운 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에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혀 국가상징물을 위주로 미적 감각에 대한 교육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⁶³⁾

또한 산림복구전투와 연계되면서 강조되는 국수 소나무는 다른 국가상징물을 강조하는 촉매가 되고 있다. 원림녹화에서 소나무와 목란이 함께 언급되는 것처럼 예술작품 형상화 등에서는 참매와 풍산개까지 함께 거론된다. 국가상징화된 동식물이 세트처럼 함께 강조되는 양상이다. 2019년 11월에 열린 ‘전국조각·공예축전’에서는 수지공예〈주체조선의 상징〉, 〈참매와 소나무〉, 도자공예〈조선의 국화 목화꽃〉, 나무공예〈소나무〉 등으로 국가상징화된 동식물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전시되었다.⁶⁴⁾ 축전에서는 국가상징을 주제로 형상한 작품들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수지조각〈참매〉, 수지공예〈참매와 소나무〉, 수만

63) 오삼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생태환경 국가전략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33~137쪽.

64) “우리 생활의 량만과 정서가 비긴 조형적 형상: 전국 조각, 공예축전장을 돌아 보고,” 『로동신문』, 2019년 11월 8일.

년화 <목란>, 수예 <조선의 국조, 국수, 국화>, 나무부각 <풍산개> 등이 주목을 받았다.⁶⁵⁾ 이와 같이 국화 목란과 국조 참매는 김정은 시대에 지정된 국가상징물이 아니지만 국수 소나무, 국견 풍산개가 지정되면서 더불어 강조되고 있다.

2) 김정은 시대의 상징 경관

김정은 위원장이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하면서 소나무 경관은 그 자체로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경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소나무가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다른 김정은 시대 업적을 시각적으로, 일상적으로 보여주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김일성, 김정일의 업적과 위대성이 구호나무에 새겨지는 양상이었다면 김정은의 업적과 위대성은 가로수나 명산 그 자체로 강조할 수 있게 됐다.

첫째, 소나무를 평양시 등 상징적인 거리에 심어 상징적인 모습을 연출하는 효과가 의도된다. 『로동신문』은 평양시에 “원림록화에 리용할 보기 좋은 소나무”를 심었으며 함경남도 와 황해북도 또한 공원, 유원지 등에 소나무를 조성했다고 알리고 있다. 특히 평양은 국수인 소나무와 국화인 목란 심기에 집중했다. “국수인 소나무와 국화인 목란 그리고 느티나무, 살구나무, 복숭아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8만여그루의 나무를 심을 것을 계획”했다는 『민주조선』의 보도는 수도인 평양과 국수 소나무, 국화 목란이 연계되는 양상을 확인시켜 준다.⁶⁶⁾ 평양시 모란봉 구역 비파거리는 ‘원림록화의 본보기거리’로 지정되었는데 관상용 나무

65) 『조선신보』, 2019년 12월 18일.

66) “수도를 록음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민주조선』, 2019년 3월 30일.

와 관광용 화초들을 조성하는 시범 거리를 조성한 것이다. 이 거리 또한 국수인 소나무와 국화인 목란을 많이 심을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다.⁶⁷⁾

둘째, 소나무와 연관된 지역이 대내외 관광지 등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북한 문헌들에서 ‘소나무 절경’으로 꼽히는 곳들을 취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동해명승 송도원 숲숲이다. 700여 년 전 바다기슭에 소나무림이 조성되었고 김일성 주석이 노송에 대한 보호관리대책을 강조한 곳으로 강조된다. 이 지역에 대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송도원의 오랜 소나무들은 금보다 더 귀중한 나라의 재부”라며 “한그루도 죽지 않게 철저한 보호관리대책을 세우라”라고 지시했다고 강조한다.

철산장송이라 불리는 서해안 일대 소나무림도 다시 주목하는 양상이다. 철산반도 바닷가의 철산장송은 수천 미터의 길이로 펼쳐져 있는데 해방 후 국토건설계획에 따라 조성된 곳으로 100년 이상 자란 나무들도 다수라고 한다. 천연기념물인 금강산 창터소나무림도 절경으로 꼽힌다. 금강산의 외금강 구룡연 구역 신계동 입구에 있는 창터소나무림의 밀도는 정보당 450여 대로 제일 큰 나무의 높이는 30m다. 일제 강점기 소나무림 훼손 행위에 대해 김일성 주석이 대책을 강구한 곳으로 강조되는 지역이다. 이 밖에도 리원군 100리 송정, 칠보산, 묘향산, 구월산, 총석정, 해금강술섬, 흥원술섬, 명사십리, 마전, 우산장, 시중호, 석담구곡, 동림폭포 등의 소나무 숲이 다시 재조명되는 곳들이다. 이 지역들은 국수인 소나무가 절경이라는 이유로 ‘명산’, ‘명승지’로 탈바꿈하는 곳들이다.⁶⁸⁾

67) “복음우거지고 백화만발하게,” 『로동신문』, 2019년 4월 6일.

68) 오삼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생태환경 국가전략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33~137쪽.

5. 결론: ‘소나무의 나라’가 되려는 북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다. 그런데 그 수치가 놀랍다. 한국궐립연구소가 1991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7회(1991, 1997, 2002, 2006, 2010, 2015, 2023)에 걸쳐 조사한 ‘산림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는 소나무로 집계됐다.⁶⁹⁾ 게다가 소나무는 1997년과 2023년 조사 결과를 제외하면 50% 이상이 소나무를 좋아한다고 응답했다. 2위를 차지하는 은행나무, 단풍나무 등에 대한 응답 결과가 4.1~9.1%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소나무 선호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다. 북한 또한 인민이 사랑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꼽고 있다.⁷⁰⁾ 그야말로 소나무는 남북 모두가 사

69) 1991~2015년은 한국궐립에서 조사하고 2023년에는 메가리서치에서 조사했다. 1991년 조사 결과는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www.nl.go.kr), 2006, 2015, 2023년 조사 결과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2010년 조사 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books.nifos.go.kr)에 공개돼 있다. 1997년과 2001년 조사 결과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소장하고 있다. 조사 결과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조사 시기	국민		전문가	
	1순위(%)	2순위(%)	1순위(%)	2순위(%)
1991년	소나무(54.8%)	은행나무(4.1)	소나무(28.8)	느티나무(13.5)
1997년	소나무(45.7%)	은행나무(7.5)	소나무(53.1)	은행나무(6.9)
2001년	소나무(58.7%)	은행나무(6.8)	소나무(53.0)	느티/은행(6.7)
2006년	소나무(66.1%)	은행나무(9.1)	소나무(56.3)	느티나무(10.3)
2010년	소나무(67.7%)	은행나무(5.6)	소나무(51.3)	느티나무(10.3)
2015년	소나무(62.3%)	은행나무(5.4)	소나무(49.5)	느티나무(16.0)
2023년	소나무(46.2%)	단풍나무(4.5)	소나무(37.2)	느티나무(9.6)

70) 실제 북한 인민의 기호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북한의 대내외 선전매체는 인민이 사랑하는 나무로 소나무를 꼽고 있다. “우리 인민 누구나 사랑하는 소나무,”

량하는 나무인 셈이다.

남북이 사랑하는 소나무가 남북의 화해와 협력을 이끄는 소나무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⁷¹⁾ 남북 정상외의 공동 기념식수로 소나무가 선택된 것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지난 2018년 4월 27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군사분계선에 소나무를 공동 식수한 바 있다. 당시 식수목은 평화의 의미를 담기 위해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생 소나무로 선정되었다.⁷²⁾

북한에서 소나무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라는 관용어를 떠올릴 만큼 '만경대혁명명일가'를 상징했으나 국수로 지정되면서 점차 민족성을 상징하는 의미가 부가되고 있다. 북한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소나무는 "민족의 기상이 비껴여있고 오래전부터 민족의 사랑을 받아온 소나무"⁷³⁾이기 때문에 소나무에는 남북한이 공유하는 의미와 정서, 감각 등이 담겨 있다. 남북 간 이념과 체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소나무가 남북 모두에게 귀중한 의미와 가치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같은 측면에서 북한에서 국수, 소나무는 북한이라는 국가만이

우리민족끼리, 2019년 5월 24일.

71) 소나무를 통해 다방면으로 남북 협력의 가능성을 전망할 수 있다. 소나무를 전멸 상태에 이르게 하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등 생태적 측면에서도 남북 협력사업이 검토될 수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의 나라에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 사실상 방제를 포기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북한의 현황은 파악하기 어렵지만 2018년 11월 우리 정부는 북한에 재선충병 방제 약제 50톤을 전달한 바 있기도 하다.

72) 문 전 대통령은 백두산 흙과 대동강 물로, 김 위원장은 한라산 흙과 한강 물로 합토합수(合土合水)하여 한반도의 화합을 기원했다. 기념식수 행사와 나무 종류는 우리 측이 제안하고 북측이 받아들인 결과다.

73) "민족의 기상이 어린 국수-소나무," 『민주조선』, 2019년 3월 19일.

아니라, 민족을 호명하는 이중적이고 다층적인 상징이 되고 있다.

북한은 소나무를 국수로 지정한 뒤 소나무 칭송을 이어 가고 있다. 이는 “(내 조국은) 으뜸가는 소나무의 나라”라는 표현에까지 이르고 있다.⁷⁴⁾ 국수로 지정한 소나무가 으뜸이어야 하는 당위가 생겨났기 때문인데, 북한이 소나무의 효용성을 재평가하며 수종 개량 등에 관심을 쏟는 일 또한 ‘으뜸가는 소나무의 나라’가 되려는 일환으로 읽힌다.

북한에서 소나무가 국수로 지정된 후, 김일성 일가를 상징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에서 ‘민족이 사랑한 나무’로 의미가 변환되는 과정, ‘사회주의 체제 수호 및 고수’의 의미로 맥락화되는 과정 등은 북한에서 소나무의 의미가 어떻게 전화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국수 소나무에 투영하는 것은 사회주의 체제 수호에 대한 욕망이다. 역세고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소나무는 북한 사회의 희구를 형상한다. 북한 체제의 고난과 난관을 극복한 ‘내 조국의 장한 모습’⁷⁵⁾이 ‘소나무의 나라’와 등치되는 셈이다. ‘으뜸가는 소나무의 나라’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이상향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 접수: 10월 27일 / 수정: 12월 8일 / 채택: 12월 11일

74) “민족의 억센 기상이 비낀 조선의 국수 소나무(2),” 『로동신문』, 2018년 11월 18일.

75) “조선인민이 사랑하는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 조선중앙통신, 2019년 9월 4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공명성·임영일·리호철, 『조선의 국수-소나무』(평양: 사회과학출판사, 2018).

『림업』(중학교 제6학년용)(평양: 교육도서출판사, 2010).

손기성, 『산림총서(6)』(평양: 공업종합출판사, 2000).

주설용, “소나무,” 『조선문학』, 제5호(평양: 문학예술출판사, 2019).

2) 신문

“금야혹송,” 『로동신문』, 2019년 5월 19일.

김정은, “전당, 전군, 전민이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조국의 산들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자: 당, 군대, 국가경제기관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2015. 2. 26,”
『로동신문』, 2015년 2월 27일.

“록음우거지고 백화만발하게,” 『민주조선』, 2019년 4월 6일.

리영일, “조선인민의 기상과 조선의 국수-소나무,” 『김일성종합대학보』, 2016년 3월
8일.

“미술부문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명작창작의 기본,” 『로동신
문』, 2019년 6월 4일.

“민족의 기상이 어린 국수-소나무,” 『민주조선』, 2019년 3월 19일.

“민족의 닦과 기상이 어린 국가상징들,” 『로동신문』, 2020년 2월 2일.

“민족의 역센 기상이 비긴 조선의 국수 소나무(1),” 『로동신문』, 2018년 11월 11일.

“민족의 역센 기상이 비긴 조선의 국수 소나무(2),” 『로동신문』, 2018년 11월 18일.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미술작품전시회 <조선의 국수-소나
무> 개막,” 『로동신문』, 2019년 2월 14일.

“사회주의애국립운동,” 『로동신문』, 2017년 3월 3일.

“산림복구전투를 힘있게 벌려 모든 산들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전변시키자,” 『로동신
문』, 2017년 3월 2일.

“소나무를 더 많이 심어 가꾸며,” 『로동신문』, 2019년 3월 1일.

“소나무의 역센 기상을 화폭에 담으며,” 『로동신문』, 2019년 2월 3일.

“수도를 록음 우거진 공원속의 도시로,” 『민주조선』, 2019년 3월 30일.

“식수절을 맞으며 더 많은 나무를 심자,” 『로동신문』, 2001년 2월 25일.

“우리 민족의 기상, 우리 국가의 강인성이 비낀 화폭들 광명성절경축 미술작품전시회
 《조선의 국수-소나무》를 보고,” 『로동신문』, 2019년 2월 27일.

“우리 생활의 량만과 정서가 비낀 조형적 형상: 전국 조각, 공예축전장을 돌아보고,”
 『로동신문』, 2019년 11월 8일.

“자강도 미술창작사에서,” 『로동신문』, 2019년 6월 27일.

“조선의 국가상징,” 『로동신문』, 2019년 3월 1일.

“조선의 국가상징: 국수-소나무,” 『민주조선』, 2018년 10월 16일.

“조선의 국조: 까치,” 『김일성종합대학보』, 2023년 6월 16일.

『조선신보』, 2019년 12월 18일.

3) 기타 자료

“국가상징들에 어려있는 숭고한 뜻(6),” 조선의 오늘, 2020년 9월 11일.

김정은,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2012년 4월 27일),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9일.

“너를 보며 생각하네,” 우리민족끼리, 2020년 9월 7일.

“우리 인민 누구나 사랑하는 소나무,” 우리민족끼리, 2019년 5월 24일.

“조선의 국수-소나무,” 통일의 메아리, 2015년 12월 30일.

“조선인민이 사랑하는 노래 《너를 보며 생각하네》,” 조선중앙통신, 2019년 9월 4일.

“조선의 국수 소나무,” 조선의 오늘, 2022년 4월 18일.

조선중앙통신, 2005년 9월 9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배재수 외, 『조선후기 산림정책사』(국립산림과학원, 2002).

이어령 외 엮음, 『한·중·일 문화코드 읽기 비교문화상징사전: 소나무』(서울: 종이나
라, 2005).

이지순·이무경·전영선, “국가상징의 문화적 형상과 북한의 브랜드 전략,” 『KINU 연
구총서 21-03』(2021), 1~201쪽.

전영우, 『나무와 숲이 있었네』(서울: 학교재, 1999).

2) 논문

강혜석, “김정은 시대 통치담론 변화와 ‘국가’의 부상: <김정일애국주의>와 <우리국
가제일주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59집 3호(2019), 309~346쪽.

공우석, “북한 소나무와 나무의 생태와 자연사,” 『환경영향평가』, 제15권 5호(2006),
1~18쪽.

마성은, “우리 국가제일주의와 북측 동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제26호, 한국안
동청소년문학학회(2020), 71~102쪽.

배재수, “조선후기 송정의 체계와 변천 과정,” 『산림경제연구』, 제10권 2호, 22~50쪽.

오삼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생태환경 국가전략 연구”(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 1~249쪽.

오삼언·김은희·김경민, “김정은 시대 산림정책의 특징,” 『북한학연구』, 제14권 2호
(2018), 101~133쪽.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KINU Insight』, 제4권
(2019), 1~27쪽.

정영철, “북한의 ‘우리국가제일주의’: 국가의 재등장과 ‘체제 재건설’의 이데올로기,”
『현대북한연구』, 제23권 1호(2020), 8~38쪽.

최현아·배상원·이슬기 외, “북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용도별 조림수종 선정,” 『통일
문제연구』, 제29권 1호(2017), 37~56쪽.

3) 신문

“북, 남산의 푸른 소나무- 민족자주, 계속혁명 사상의 노래,” 『자주시보』, 2018년 11월 14일.

4) 기타 자료

“국립국어원 우리말샘,” https://opendict.korean.go.kr/dictionary/view?sense_no=589278&viewType=confirm(검색일: 2022년 7월 12일).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 books.nifos.go.kr.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www.nl.go.kr.

“국사편찬위원회 조선왕조실록,” https://sillok.history.go.kr/id/kda_10308024_003
(검색일: 2023년 5월 10일).

“북, 금야흑송 가꾸기 사업 활발... 강원도 통천에 보호구,” 통일뉴스, 2020년 7월 3일.

“북, 김정은 증조부 ‘반일단체’ 결성 100돌 대대적 기념,” 연합뉴스, 2017년 3월 23일.

“북한이 꼽은 2022년 ‘3대 위기’ ... 코로나19·자연재해·식량난,” 뉴스1, 2023년 1월 25일.

“산림임업용어사전,” 『산림임업통계연보』, <https://kfss.forest.go.kr/stat/ptl/fyb/frstyYrBookList.do?curMenu=9854>, 2022(52), 164쪽.

산림청 홈페이지, https://www.forest.go.kr/kfswweb/kfi/kfs/mwd/selectMtstWordDictionary.do?pageIndex=1&pageUnit=10&wrdsn=8984&searchWord=&searchType=&wrdsType=0&searchWrd=%ec%b2%9c%ec%97%b0%ea%b0%b1%ec%8b%a0&mn=NKFS_04_07_01&orgId(검색일: 2023년 6월 1일).

통일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kinu.or.kr/www/jsp/prg/api/>.

3. 국외 자료

1) 기타 자료

<http://www.dac.gov.za/national-tree>(검색일: 2023년 1월 16일).

<http://www.moa.gov.cy/moa/fd/fd.nsf/>(검색일: 2023년 1월 16일).

https://ab.gov.ag/detail_page.php?page=27(검색일: 2023년 1월 16일).

<https://angola.org/simbolos/>(검색일: 2023년 1월 16일).

<https://knowindia.india.gov.in/national-identity-elements/national-tree.php>(검색일: 2023년 6월 28일).

<https://naturstyrelsen.dk/om-os/kontakt/faq/nationalplanter-og-dyr/>(검색일: 2023년 6월 28일).

https://overseas.mofa.go.kr/cr-ko/brd/m_6605/view.do?seq=949398(검색일: 2023년 6월 28일).

<https://web.archive.org/web/20070630215053/http://www.forestry.gov.kh/Documents/>(검색일: 2023년 6월 28일).

<https://www.bahamas.gov.bs/wps/portal/public/gov/government/>(검색일: 2023년 6월 28일).

<https://www.cancilleria.gov.co/en/national-symbols-and-other-information-interest>(검색일: 2023년 6월 28일).

<https://www.congress.gov/congressional-report/108th-congress/house-report/689/1>(검색일: 2023년 6월 28일).

<https://www.congress.gov/congressional-report/108th-congress/house-report/689/1>https://ab.gov.ag/detail_page.php?page=27(검색일: 2023년 1월 16일).

Designation of North Korea's Pine Tree as the 'National Tree' and Its Implications

Oh, Sam Un(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

Bae, Jae Soo(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In North Korea, pine trees have symbolized the 'Mangyeongdae Revolutionary Family' to the extent that the idiom 'Blue Pine Tree of Namsan' comes to mind. However, paradoxically, since the pine tree was designated as the national tree in 2015, its ethnicity has been highlighted. In explaining why North Korea designated the pine as its national tree, North Korea emphasizes that the pine tree has long symbolized the nation's strong spirit and strong will and that the life of the nation and the pine tree have been closely related. Pine trees were not very useful as a timber forest, but since its designation as the national tree, pine trees have been reevaluated, and research on tree species improvement has been carried out. The pine tree has been contextualized to mean 'fidelity', 'loyalty', and 'spirit', and thus utilized to mean 'protection of socialism'. Unlike other national symbols that symbolize 'patriotism', the pine tree functions as a signifier of

‘protection and adherence to the system’. The pine tree plays an effective role in encouraging the fight for forest restoration by appealing to people’s patriotism. In addition, standards for prioritizing pine trees have emerged in the fields of literature, art, and education, and pine landscapes are also being reexamined. The pine, the national tree, reflects the desire for the socialist system of the Kim Jong-un era.

Keywords: Kim Jong-un, pine tree, socialism, national symbol, Kim Il-sung